

[특집] 한글의 과학성을 문화로 바꾼 분들

## 말[言語]은 나라의 본성(本性)

— 주시경, 최현배, 이희승을 중심으로\*

이병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1.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는 오래전에 ‘주시경’을 다루기에 앞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한 시대의 역사적 인물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늘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받고는 한다. 전통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사이에서 몸부림쳤던, 그러면서 쓰러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으려 했던 이른바 개화기(開化期)의 영원히 잊지 못할 인물의 한 사람인 주시경(周時經, 1876~191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병근, “주시경”, 《국어연구의 발자취(I)》, 김완진·안병희·이병근 공저, 1985)

---

\* 주시경 서거 100주기를 맞아 필자가 청탁받은 원고의 원래 제목은 ‘우리말은 나라의 근본’이었다. 그리고 우리말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말을 지킨 인물(주시경, 최현배, 이희승)의 생애, 시대적 배경을 집필하되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까지도 크게 바뀐 바 없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에서도 부분적인 면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강습소에서 주시경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면서 또 다시 그의 후계자가 된 히뭇[白淵] 김두봉, 다시 그 강습소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면서 고향 인근의 후배였던 외솔 최현배(또는 ‘감매’, ‘한방우’)는 주시경 정신의 후계자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주시경의 저서를 통해 신학문에 접하게 되면서 일생을 줄곧 언어 연구에 몸 바쳤던 간접적인 제자 일석(一石) 이희승은 친구 최현배와 서로 얽혀서 줄곧 한 세상을 지내며 이 나라 어문 운동과 어문 연구를 발전시켜 온 인물이다. 그리고 3·1운동 후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광복 후에는 북한으로 들어가 김일성 밑에서 제2인자로 지내다 숙청당할 때까지, 김두봉은 그곳에서 어문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한글 전용의 정책을 펼쳤다. 남한에서는 최현배가 문교부에서 근무하며 문교 정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애를 많이 썼다. 정책과 연구의 내용이 이들 사이에 서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주시경에게서 물려받은 어문민족주의가 깔려 있음은 사실이다. 다만 이 중 이희승은 우리말의 맛을 살려 우리말을 애용했지만, 신조어를 자연스럽지 못하게 고유어로 마구 잡이로 다듬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급작스러운’ 한글 전용 정책도 반대한 점에서 앞의 인물들과는 분명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글파’에 반대하며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맞춤법을 주장했던 박승빈 변호사 중심의 ‘정음파’도 등장했다. 어찌된 일인가.

이제 ‘말’이 나라의 본성이란 주시경의 이러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찌 반영되었는지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위 선각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 2. 주시경과 김두봉

한말(韓末)의 지식인들은 외세로 인해 쓰러져 가고 있던 나라를 건지려 그들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발버둥을 쳤다. 주시경은 바로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말[언어]’을 중심으로 삼아 나라와 겨레를 지키려고 우리말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지 4년 만에 만 38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영원히 저버린 사람이다. 황해도 봉산군 무릉골에서 태어나 서울 큰덕에 양자로 온 주시경은 원래 이름이 주상호(周相鏞)다. 근대 신학문을 접하다가 배재학당을 다녔다(1894년부터 1년간, 1896년부터 1900년까지 4년간). 여기서 주시경은 서재필을 선생으로 만나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승만, 윤치호 등은 학당의 학생회인 ‘협성회’에서 함께 일을 한 동창이다.

1896년 이후 주시경은 독립신문사에서 일을 하다가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 즉 한글맞춤법연구 모임을 결성하며 이듬해 《독립신문》에 국문 관련 논설들을 집필해 자신의 언어관을 피력했다. 한편 같은 해에 독립협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소장 신진으로 활동했다. 말하자면 20대에는 국어 국문의 연구와 정치 활동이라는 두 가지에 몸을 담았던 셈이다. 배재학당 역사지리특별과를 거쳐 보통과를 1900년에 마친 주시경은 상동교회의 청년학원 국어강습소에 국어문법과를 만들어 국어 국문에 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1년간 직접 강습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가 가르쳤던 교재는 후에 《대한국어문법》(1906)으로 엮었는데 그 내용은 문자 체계와 맞춤법에 관한 것이었다. 책 보파리를 끼고 수없이 많은 학교를 다니며 국어·역사 등을 가르쳤다. 1907년에 설립된 학부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위촉된 그는 정말 성의를 다한 듯 위원들

중 가장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주제는 지석영(池錫永)이 제기한 이른바 ‘국문정리’의 과제들이 중심이었다. 역시 문자 체계의 새로운 확립과 그에 따른 맞춤법의 정리 방향을 위해 《대한국어문법》을 다시 정리해 1908년에 《국어문전음학》을 간행하고, 이듬해 최종 국문연구소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어서 현대 언어학에서의 형태론(‘기난갈’ 참조)과 통사론(‘짚듬갈’ 참조)까지 포함한 문법서인 《국어문법》을 1910년에 간행했다. 이 책에 소개된 문장 분석의 도해 방식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독창성을 크게 강조해 해석하였는데, 뒤늦게 밝혀졌지만 실은 당시의 영어교사 참고서인 《English Lessons》(1906)의 분석 방법을 참고했던 것이었다.<sup>1)</sup> 문자와 음운학 내용의 용어와는 달리 이 책의 문법 용어들은 일상적인 고유어를 줄이거나 ‘입, 제입, 두로, 문’ 등처럼 새로 지어 쓰면서 한글 전용을 시도했다. 그리고 《국어문법》은 바로 시작된 일본의 제국주의로 《조선어문법》(1911, 1913 등)으로 수정되었고 민족주의 어문관이 잘 요약된 《국어문법》의 서문은 없어졌다. 그리고 일제강점하에 들자 문을 연 조선광문회에서 그는 김두봉을 비롯한 몇몇 편집위원들과 조수 김여제의 도움을 받아 근대적인 국어사전 《말모이》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소리갈》(1913) 같은 유인본도 내놓았고, 끝으로 본문을 모두 한글로만 쓴 《말의 소리》(1914)를 간행하고는 해외로 망명 준비 중 38세의 젊은 나이로 작고했다.

주시경은 말과 겨레와 나라의 밀접하고 깊은 관계를 그의 초기 논설부터 강조해 왔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가장 응축된 표현은 《국어문법》(1910)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1) 정승철(2003), 국어문법과 English Lessons, 《국어국문학》 134.

우주자연(宇宙自然)의 이(理)로 지구(地球)가 성(成)하매 기면(其面)이 수륙(水陸)으로 분(分)하고 육면(陸面)은 강해산악사막(江海山岳沙漠)으로 각구역(各區域)을 계(界)하고 인종(人種)도 차(此)를 수(隨)하여 구구부동(區區不同)하며 그 언어(言語)도 각이(各異)하니 차(此)는 천(天)이 기역(其域)을 각설(各設)하여 일경(一境)의 지(地)에 일종(一種)의 언(言)을 발(發)하게 함이라 시이(是以)로 천(天)이 명(命)한 성(性)을 종(從)하여 기역(其域)에 기종(其種)이 거(居)하기 의(依)하며 기종(其種)이 기언(其言)을 언(言)하기 적(適)하여 천연(天然)의 사회(社會)로 국가(國家)를 성(成)하여 독립(獨立)이 각정(各定)하니 기역(其域)은 독립(獨立)의 기(基)요 기종(其種)은 독립(獨立)의 체(體)요 기언(其言)은 독립(獨立)의 성(性)이라.

말하자면 ‘域’ 즉 ‘땅(區域)’과 ‘種’ 즉 ‘겨레(人種)’와 ‘言’ 즉 ‘말(言語)’이 하늘(天)이 명한 성(性)에 따라 하나의 천연적인 사회가 형성되되, 그것이 곧 독립된 ‘나라(國家)’가 된다며, ‘땅’은 독립의 ‘터전(基)’이요, ‘사람(種)’은 독립의 ‘몸(體)’이요, ‘말(言)’은 독립의 ‘본성(本性, 性)’으로,<sup>2)</sup> 세 가지 요소가 합해져 하나의 사회며 나라가 각각 정해진다고 했다. 여기서 ‘본성’은 나라의 경우 ‘국성(國性)’인데, 당시의 역사학자들이 강조했던 ‘국수(國粹)’나 ‘국혼(國魂)’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언어

2) 여기서 ‘성(性)’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는 애매하다. 허웅(1974) 《우리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에서는 ‘바탕’ 즉 ‘독립의 상’을 ‘나라 바탕(국성)’이라 했고, 이준식(2008) “최현배와 김두봉 언어분단을 막은 두 한글학자” 《역사비평》 082호에서는 ‘일(性)’로 보았다. 그리고 고영근·이용·최형용(2011)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는 ‘성’은 다른 말로 옮기기 어렵다면 대체로 ‘본질적인 요소’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를 중심으로 한 자연발생적인 독립국가관을 주장했었기에 세상의 모든 나라는 각각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본성(本性)인 ‘말’이 없으면 몸도 아니고 터도 못 되는 셈이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성쇠(盛衰)도 말의 성쇠에 있고 나라의 존부(存否)도 말의 존부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우리말 연구를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독립을 강하게 의식한 ‘민족어(民族語)’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일 민족이니 단일어니 하는 생각이 여기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 단일성의 순수한 핵심, 즉 국수(國粹)를 찾다 보면 이것이 지나쳐 ‘광란적인 애국주의(chauvinisme)’ 사상이 나오는 일이 있다. 한국의 ‘나라, 겨레, 말’의 이러한 ‘단일성’ 관계는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일반화가 어려운 한국적 특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어문 민족주의적 인식에 빠진 주시경은 그의 이름도 고유어 인식이 강한 ‘한힌샘’(아마도 ‘태백천(太白泉)’ 정도?)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기독교에서 민족종교의 기치를 든 대종교(大宗教)로 개종했다고도 한다. 주시경의 민족사상은 그 후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주시경의 후계자로 불리는 김두봉<sup>3)</sup>은 그 호를 ‘白淵’에서 ‘히뭇’으로 번역해 불렀듯이 주시경과 통하는 면이 많았다. 1889년에 경남 기장군 동부리(현재는 부산광역시에 편입)에서 김돈홍(金敦洪)의 장남으로 재력과 학식을 갖춘 향리 집안에서 태어났다.<sup>4)</sup> 그의 일가에는 사회주의자 또는 독립운동가가 많았다 한다. 동생은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이름을 떨친 김두백이다.<sup>5)</sup> 17세까지 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공부하다

3) 김두봉의 자세한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한홍구(2010), 김두봉-혁명가가 된 한글학자, 《한국사 시민강좌》 47집을 참조.

4) 김두봉의 탄생 60주년 기념 논문을 김수경이 1949년에 발표하였다.

가 보명학교를 다녔는데, 1908년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가 세운 기호학교(중앙학교의 전신)에 입학, 특별과를 졸업한 후, 다시 배재학당을 졸업했다. 주시경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어 강습원에서 주시경에게서 배워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주시경에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듯하다. 김윤경이 질문을 하면 주시경은 자세한 것은 김두봉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시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 그 강의를 이어받아 가르쳤던 사실로도 보면 후계자가 될 만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매우 깊었다. 나아가 김두봉은 대종교의 교조 나철(羅喆, 1863~1916)에게서 영향을 받아 대종교에 입교, 상당히 높은 지위인 상교(尙敎)까지 올랐다.<sup>6)</sup> 주시경의 국어 연구와 나철의 민족 종교의 가르침을 받은 그가 민족주의자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안쓰럽게도 1914년에 주시경, 또 2년 뒤 1916년에 나철, 두 스승을 거의 같은 시기에 잃어버린 김두봉은 이미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자가 되어 있었고 끝내는 1919년 3·1운동 직후 압록강을 건너 중국 안동(단동)에서 영국 기선을 타고 상해로 망명하게 되었다. 그의 스승 주시경이 이루지 못한 해외 망명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해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은 것은 아니었다. 차츰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가 되어 높은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sup>7)</sup> 광복 이후 중국 연안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김일

5) 김두봉은 동아일보사 강릉 지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되어 방종현, 광상훈 등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정공식(2006),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애산학보》 32.

6) 주시경도 1910년 무렵 기독교에서 민족 종교인 대종교로 개종했다고 한다. 나철이나 김두봉과의 종교적 관계나 대종교 활동은 알려진 바가 없다.

7)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활동가인 홍도(洪濤)는 자신들의 연원을 1911년 국내에서 주

성 밑에서 부위원장을 지낸 김두봉은 1960년 끝내 연안파 숙청에 포함되었고 마지막은 함경도 주홀 온천에서 휴양을 했었다고 한다.<sup>8)</su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시경과 김두봉은 많은 유사점을 지녔다. 민족주의자이자 어문 연구자요, 교육자며 종교가(대종교)며 정치가였던 점 등등이다.

주시경이 세상을 떠난 뒤 김두봉은 보성학교 조선어 강습원을 이어 받아 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한편(여기서 최현배 등이 가르침을 받음), 주시경이 그의 후계자들과 함께 편찬하던 ‘말모이’(즉 ‘사전’)를 계속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문법서 《조선말본》(1916)을 간행했다. 상해 망명 후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성학교에서 교장을 지내며 국어를 가르치면서 《김터조선말본》(1922)을 간행하였다. 주시경의 주장과 같이 가로쓰기를 실천하였고 풀어쓰기를 시도했다. 사전을 편찬하려 시도했으나 여의치는 못했다. 북한으로 들어간 김두봉은 주시경의 영향을 받아 한글 전용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했고 조선어 학회의 맞춤법을 대체로 따랐으며, 김병제(환산 이운재의 사위로 1947년 《표준조선어(한글)사전》을 공편)에 의해 사전 편찬 팀을 꾸려 1960년에 《조선어사전》 전 6권을 사회과학원에서 편찬·간행했다. 이들의 사전은 국가 기관에서 편찬하였기에 남쪽의 사설 출판사에서 개인적으로 나온 사전들에 비해서는 좀 체계적인 틀이 있었다.

---

시경을 지도자로 하여 조직된 비밀 결사, ‘배달말글몸음’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한홍구(2010), 김두봉, 《한국사 시민강좌》 47). 주시경이 정치 활동에 관여하기는 했어도 이 비밀 결사의 지도자였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는다.

8) 1983년 코펜하겐에서 만난 체코의 푸체크 교수는 “주홀 온천에서 김두봉과 면담을 했다.”라고 필자에게 알려줬다.

### 3. 외솔(한방우) 최현배와 일석 이희승

최현배는 동향 사람인 김두봉의 권고를 받아 주시경의 제자가 되었고, 주시경 사후 김두봉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는 두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들과는 차이가 있다. 경상남도 울산(하상면 동리)에서 1894년에 태어난 최현배는 고향에서 우선 한학을 수학하고, 고향의 일신학교에서 3년간 신식 교육을 받았다. 여기서 받은 유일선(柳一宣)의 산술책을 통해 공부하는 태도와 방법을 익혔는데, 이것이 일생의 학문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1910년 상경해 관립한성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는 관비로 일본 유학을 보내는 특전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가 설립되고 그에 따라 학교명도 경성고보로 바뀌고 교장도 일본인으로 바뀌어 최현배는 이 학교에 점점 흥미를 잃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그는 고향 선배 김두봉의 여러 지도를 받아 문법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선어 강습원에 나가 주시경에 이어 김두봉의 제자도 되었다. 성적은 100점에 가까운 최고였다. 그러나 위 두 스승과는 달리 민족 종교인 대종교에 입교하지는 않은 듯하다. 강습원을 다니다가 접한 주시경의 작고 소식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이에 망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결심하고 일생 어문 연구에 몰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1915년 한성고보 졸업과 함께 단 1명의 조선총독부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에 입학해 한문 교육을 연구 과목으로 했다. 4년간의 유학 끝에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교원 면허증을 받고 귀국해서 1920년부터 사립학교인 동래고보에서 국어 문법을 가르쳤다. 2년 뒤 다시 두 번째 일본 유학길을 떠났다. 1922년 우선 일본 모교의 연구과에 들어갔고 곧 교토(京都)대학 문학

부 철학과에 입학해 1925년 봄까지 교육학을 전공, “페스타로치의 교육학설”이란 졸업 논문을 썼는데, 다시 1년간 그 대학의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이 유학 기간에 그는 나라(奈良)외국어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민족 사회의 개조에 관한 글을 써서 1926년 《동아일보》에 〈조선민족 갱생의 도(朝鮮民族 更生의 道)〉를 발표했다. 그리고 1926년 봄에 연희전문학교 조교수로 임명받았다. 철학, 윤리학, 심리학 등을 강의하던 최현배는 차츰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고 강의하기 시작해 우선 《우리말본 첫째매》(1929)를 선보이고, 1937년에는 오랜 기간 꿈꾸던 《우리말본》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홍업구락부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고 4년 뒤 복직은 되었으나 도서관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그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저서로 《한글갈》(1940)을 저작했는데, 이는 훈민정음의 역사와 그 이론들을 정리한 책이다. 일제 강점기에, 그리고 광복 직후에 한글 연구에 관한 많은 논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은 언어 문자를 중심으로 한 주시경 등의 ‘애족’의 민족정신에 입각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사 서술의 일부다.

그간 최현배는 사전 편찬과 그 준비 작업인 ‘맞춤법 통일안 제정, 표준말 사정과 외래어표기법 확립’ 등의 작업을 주로 조선어학회의 동지들과 같이 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2년 제1회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규정하고 1921년 개정언문철자법을 확정하였고 끝으로 1929년에 제3회의 언문철자법 개정이 완료되어 이듬해 적용되었는데, 여기에 최현배도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sup>9)</sup>

최현배는 ‘말’과 ‘겨레’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9) 김윤경(1938), 《조선문자급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 567~601.

말씨(言語)는 겨레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생명이요 힘이다. 말씨가 움직이는 곳에 겨레가 움직이고, 말씨가 흥하는 곳에 겨레가 흥한다. 여기에 겨레 다툼은 말씨 다툼으로(民族鬭爭은 言語鬭爭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 겨레가 무력으로써 다른 겨레를 정복하고 나서는, 그 정복의 쾌를 길이길이 누리기 위하여, 그 정복으로 하여금 완전히 정복이 되기 위하여, 그 정복당한 겨레의 말을 없이하려고 든다.

(최현배,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1953)

이극로에 이어 제3회 조선어학회 간사장을 지낸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은 현재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서 태어났다. 이희승은 1896년생이어서 최현배보다 2년 아래였다. 전의 이씨로 조선어연구회에서 만난 이극로와는 족친(族親)이었다. 13세에 한성외국어학교 영어부에 입학, 3학년 중도에 한일병합의 국치로 1910년에 미리 졸업했다. 그리고는 최현배처럼 경성고보(관립 한성고등학교)에 편입학했고, 이후 양정의숙 중등학교를 거쳐 중앙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성 직뉴주식회사'의 서기로 취직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고 다음 달 다시 조선국민자유단의 지하 신문 《자유민보(自由民報)》 발행에 자금 마련을 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sup>10)</sup> 1925년 경성제국대학에 입학, 1930년 법문학부 조선어학·조선문학 전공을 마쳤고 조선어연구회에 입회, 조선어철자법통일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경성사범학교 교유를 거쳐 1932년에 이화여전 교수로 취임했다. 조선어연구

---

10) 이 사실은 《동아일보》 1964년 3월 5일 자의 '3·1운동 전후' ⑤에 밝혀져 있다. 이 기사를 찾아준 이정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대한언론인회 문명호 주필께 감사한다.

회가 조선어학회로 발전하면서 이극로에 이어 간사와 간사장을 역임하며 강습회는 물론 맞춤법 제정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완성되자 이의 해설을 연재하기도 하며 그 보급에 열을 올렸다. 그가 강조했던 맞춤법의 핵심은 한국어의 구조적 특질에 따라 체언과 조사 그리고 용언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하는 이른바 형태적 표기에 있었다. 그것은 주시경 맞춤법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조선어철자법강화” 《당성(黨聲)》 천도교 청년당원지, 1934년 10회 연재), 풀어쓰기를 반대하는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표준말 사정, 외래어표기법 제정, 그리고 사전 편찬 등에 깊이 관여했다.<sup>11)</sup> 여기서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최현배와는 의견 차가 있을 때 번번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고집이 있었다고 한다. 1940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대학원에 2년간 유학, 경성제대 교수였던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지도하에 다시 언어학을 연구했다. 이른바 과학적 연구였다. 그러면서도 이희승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 국어 속에 나서, 국어 속에서 살다가, 그 국어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가는 일반 국민에게 국어에 대한 지식을 공급하고, 국어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국어에 대한 애호심을 촉발하여, 우리 국민의 생존 번영과 국어와의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시키는 ……  
(이희승, 《조선어학론고(朝鮮語學論攷)》, 서(序), 을유문화사, 1947)

11) 최현배와 이희승은 주시경과 김두봉과는 달리 천도교에 입교하지는 않았다. 다만, 천도교 주최의 강연에 어문 관련 강사로는 참여했다. 또 최현배는 고향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고 이희승은 4·19 때 교수단 데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이병근,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의 삶과 시대, 《애산학보》 37, 2011).

1942년 봄 이화여전 복직 몇 달 후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연행되었고, 곧이어 장지영, 최현배, 김윤경 등이 옆방에 수감되었다. 당시 민족주의적 어문학자들의 검거는 계속되었고 또 조선어학회를 후원해 준 애산 이인, 남저 이우식 등의 인사들까지 33명이 연행되었다. 또 증인도 상당수였다.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이었다.<sup>12)</sup> 치안유지법의 위반이었다는데, 그 예심 판결문의 일부를 보면 조선어학회의 활동이 곧 문화운동으로서 독립운동이었다고 보고 있다.

민족 운동의 한 형태로서의 소위 어문 운동은 민족 고유의 어문의 정리 통일 보급을 꾀하는 하나의 문화적 민족 운동임과 동시에 가장 심모원려(深謀遠慮)를 포함하는 민족독립운동의 점진적 형태이다. 생각건대 언어는 민족 내의 의사소통은 물론 민족 감정 및 민족의식을 양성하여 굳은 민족 결합을 낳게 하여, 이를 표기하는 민족 고유의 문자가 있어서 비로소 민족 문화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민족적 특질은 그 어문을 통해 더욱 민족 문화의 특수성을 파생하여 향상 발전하고 …… 문화의 향상은 민족 자체에 대한 보다 강한 반성적 의식을 가지게 하여 강렬한 민족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약소민족에게 독립 의욕을 낳게 하고 정치적 독립 달성의 실력을 양성케 하는 것으로, 본 운동은 18세기 중엽 이래 구주 약소민족이 되풀이해서 행해 온 그 성과에 비추어 세계 민족 운동 사상 가장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이라 보이기에 이르렀다.

---

12)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룬 《애산학보》<sup>32</sup>를 참조하되 김석득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언어관을 통해서 본”, 정승교 “일제는 왜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나?”, 정공식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등이 발표 당시에 주목되었다. 또 항일 재판투쟁을 다룬 최근의 한인섭(2012),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호하다》, 경인문화사 중 “조선어학회사건-이인 투옥과 자격박탈”을 참조할 것.

이러한 언어관의 논점으로 조선어학회를 바로 민족운동단체로 보고 치안유지법에 따라 조선어학회 활동에 관여한 지식인들을 묶어냈던 것이다.

본 건 조선어학회는 …… 표면적으로는 문화 운동의 가면하에 조선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 단체로서 본 건 검거까지 십여 년의 긴 세월에 걸쳐 조선 민족에 대해서 조선 어문 운동을 전개하여 왔던 것으로, …… 조선 어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낳게 하여 다년에 걸쳐 편협한 민족 관념을 배양하고, 민족 문화의 향상, 민족의식의 양양 등 그 기 도하는 바인 조선 독립을 위한 실력 신장에 기여한 바 뚜렷하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 사실로 보면 최현배와 이희승은 간사나 간사장을 지냈고, 맞춤법통일안 제정, 표준어 사정, 외래어표기법 제정, 언문 강습회 강사 참여, 한글날 기념회 관여, 《한글》 발행, 조선어사전 편찬, 조선기념도서 출판 관여 등 둘에게 모두 같은 사실이 적용되었다. 말하자면 둘의 일생은 주시경 사상의 영향 아래 거의 같은 궤도를 달려 온 것이었다.

최종적으로는 예심 판결에서 이극로(징역 6년), 최현배(징역 4년), 이희승(징역 3년 6월), 정인승·정태진·이중화(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게 형을 인도했다. 이들은 광복을 맞아 풀려났다.

#### 4. 그 후의 방향은 어디로 갔나

일제 강점기하에서는 주시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한글파’든 박승빈의 주장처럼 한글 전용상의 차이를 보인 ‘정음파(正音派)’든 말과 겨레의 성쇠(盛衰)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음파’의 대표 격인 박승빈(朴勝彬)도

한 민족(民族)의 언어(言語)는 그 민족(民族)의 성쇠(盛衰)(문화 병세력(文化 並勢力))에 당(當)해야 지중(至重)한 관계(關係)를 가진 것이라 고(故)로 자기(自己)의 민족(民族)의 언어(言語)에 당(當)해야 문전(文典)이며 철자법(綴字法)을 운위(云謂)함에는 가장 경건(敬虔)한 태도(態度)로써 함이 가(可)함

(박승빈, 《보정조선어학강의요지(補訂朝鮮語學講義要旨)》, 1931)

와 같이 민족의 성쇠가 언어와 지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상의 사고는 한국만, 또는 주시경만이 보여 준 생각은 아니다. ‘나라, 민족 및 말’의 긴밀한 관계의 역설은 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에 유행했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잃어버렸던 우리말을 찾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최현배는 문교부의 핵심 정책 담당 부서에 있으면서 한글전용과 가로쓰기, 나아가 풀어쓰기와 기계화까지 밀어붙이려 했고, 광복 후 국립대학 교수가 된 이희승은 과격한 정책에 반대했는데, 특히 이른바 ‘국어 순화’ 과정에서 일본식 표현의 제거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최현배 계통의 ‘날뜰’식 다듬기에는 극구 반대했다. 이희승은 순수 우리말의 맛을 찾으려 ‘딸깍발이’식의 수필을 썼던 것이다. 경성제국대학 출

신들 국어학자들은 이희승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제2인자가 된 김두봉의 지도를 받아 한글 전용의 실천은 물론이요, 특히 1960년대의 주체사상에 따라 ‘국어 순화’ 즉 ‘말 다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남북한 단어상의 인위적 차이가 방언의 차이를 넘어서고 있다. 언어 구조가 같은 상태에서 이를 ‘이질화’라 부르는 일은 지나친 표현이다. 남북한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전의 어문 생활과 비교해 보면 한글 전용 내지 한글 애용 그리고 가로쓰기가 남북에서 굳어지게 된 것은 주시경과 그 제자들의 덕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현재 이 글도 국립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청탁한 원고 형식에 따라 거의 한글만 쓰되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만 한자를 보였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 ‘문맹퇴치(文盲退治)’란 말은 없어지고 오히려 한자 문맹(漢字文盲)이 심각한 정도다. 독자 여러분 자신은 현재 어떠한가.

그러나 광복 후 ‘국어학’이 과학화되기를 주장하면서 광신적 국수주의에 빠짐을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녕은 이렇게 주장했다.

국어와 한민족, 또는 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흔히 국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이며 우리 문화의 소산인 듯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규정하는 경향을 본다. 물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국어라 하면 해방 후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비과학적인 쇼비니즘(Chauvinisme, 광신적 애국주

---

13) 이준식(2008), 최현배와 김두봉. 언어의 분단을 막은 두 한글학자, 《역사비평》 082. 여기서 ‘한글학자’란 아마도 주시경의 제자로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 즉 ‘한글파’를 부르는 은유일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른바 ‘정음파’와는 구별된다. ‘국어학자’에게는 ‘한글학자’라 부르지는 않는다.

의)적 태도가 엿보여 정당한 이론을 펼 수 없는 면도 있는 터이다.  
…… 우리는 과학적 정신(L'esprit scientifique)을 끝까지 견지하여  
야 하며 학문에 있어서는 극도로 냉정하여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어는 절대로 신화가 전하는 예와 같은 천손 민족의 언어도 아니며  
자연 발생적으로 지상에서 솟아난 언어도 아니다. ……

(이승녕, 민족(民族) 및 문화(文化)와 언어사회(言語社會), 《국어  
학개설(國語學概說)》(상), 집문사, 1955)

이상에서 보면 말(言語)은 주시경이 보았던 겨레(民族)와 밀접한 관  
계를 가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의 (본)성이라는 생각은 후학들에  
게도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언어의 자연발생적 형성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후에는 식민 통치에서 불거진 지나친 애  
국심으로부터 파생된 ‘광란적 애국주의’에서 벗어나 과학적 정신의 학  
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 이것은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는 구별되는 순수한 ‘국어학’의 강조인 것이다.

‘말’ 즉 언어와 ‘나라’ 즉 국가와 ‘겨레’나 ‘민족’의 삼각관계는 서로 떼  
려야 뗄 수 없는 지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주시  
경이 생각했던 국성(國性) 즉 나라의 본성이라고 믿었던 생각은 일종  
의 이데올로기이어서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말’  
즉 ‘언어’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사관에 따라 어느 정도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언어정책상의 차이도 생기게 마  
련인데, 고유어로 말을 다듬는 언어 순화의 정도가 그러하고 용어 사용  
의 정도가 그러하며, 한글 전용의 범위 문제 역시 그러하다. 이것이 현  
재의 우리다.